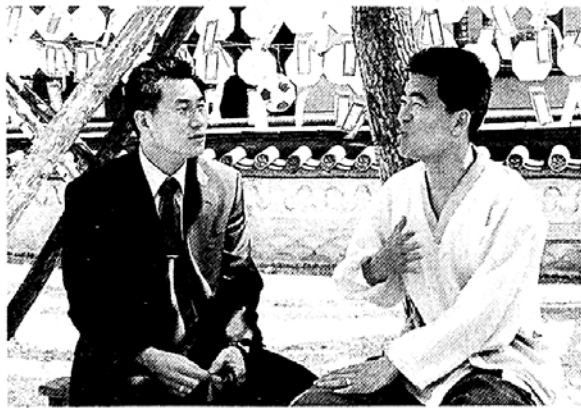


조계사 청년회 25돌...12대 구재완·정우식 현회장 대담

“수행·실천 하나된 공동체 만들어야죠”



△구재완 씨(왼쪽)와 정우식 회장이 조계사에서 청년불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6월 1일, 조계사청년회가 창립 25주년을 맞는다. 한국불교1번지 조계사의 청년불자를 모인 조계사청년회 제12대 회장 구재완 씨

초창기보다 참가회원 줄어 안타까움

기 창립 발기인 7인 중 이학홍 초대 회장은 5년 전 출가해 지금 충북 지방의 한 토굴에서 수행중인 중이고, 나머지 역대 회장들은 개인사업 등을 하며 신행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정우식 : 청년들의 발심을 수행과 교육, 실천이 하나 되는 신행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조계사청년회는 그동안 부단한 정진을 다해왔다고 봅니다. 당시에는 어떠했는지요? 구재완 : 77년에 청년회가 창립됐을 때는 물론 제가 활동하던 80년대에는 모든 법우들이 은뎀으로 뛰어들어줬고, 지금같이 이메일과 핸드폰 등 발달된 통신수단은 없었지만, 그때 활동했던 법우님들은 그야말로 '열성'과 '열의'였죠. 정우식 : 당시 법우들은 얼마나 법회에 동참했었나요? 구재완 : 매주 화요일 정기법회 때면 2백~3백 여명의 법우들이 모여 두 겹 세 겹으로 앉아 법담을 나누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벌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 청년불교가 침체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정우식 : 현재 법회에 1백여 명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년불교 침체 원인은 청년 법우들의 초발심을 신행공동체로 실현시키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신세대 법우들에 맞는 '맞춤 신행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도 청년불자로서 자부심 고취가 중요하지요.

구재완 : 청년법회 활성화를 위해, 83년부터 실시했던 '입진각 통일기원 도보 대행진'이나 81년부터 '법우 부모님 효도관광법회' 등과 같은 행사들을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정우식 : 25년 동안 조계사청년회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구재완 : 창립초기에는 사찰 내 국한된 활동에만 머물렀지요. 그러다 80~90년대 들어 자체조직 정비 등의 과도기 단계를 거쳐 '관심의 폭'이 넓어져 대사회적 활동에도 눈을 돌리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활동 전선에 나설 청년 법우들이 부족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정우식 : 청년회의 조직력이 약화되고, 청년불자들이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자기만족'에서 '사회적 실천'으로 청년불교의 방향성이 변해가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재완 : '신행의 재미' 속에서 청년불자로서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수행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합니다. 정리=김철우 기자

영산재 봉원사서 한달간 봉행

월드컵기간중...불교문화 우수성 알릴 기회

영산재보존회(회장 인공)는 월드컵 원만성취를 위해 6월 한달동안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신촌 봉원사에서 영산재를 봉행한다. 매년 단오날을 기해 봉원사에서 봉행되는 영산재가 올해는 월드컵 개막에 맞춰 5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시연되며 31일부터 6월 28일까지는 1시간 30분동안 압축하여 공연한다. 영산재는 석가모니부처님 재세 당시 영산회상에서 많은 제자들을 앞에

두고 법화경을 설하는 장엄한 모습 그대로를 재현한 의식으로, 외국인들에게는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법회에는 인문학포럼 일웅스님을 위시 준보유자 전수교육보조자 이수자 전수자 등과 신도 등 2천여명이 동참한다. 또한 봉원사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영산재 관람후 전통사찰음식도 제공한다. (02)392-3008. 이경숙 기자

‘자비의 전화’ 상담 증가세로 반전 종교문제 상담은 계속 줄어

해 무려 1,550건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종교문제 상담 건수는 178건에서 140건으로 38건이나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상담건수는 96년 5,479건의

간, 97년 343건, 98년 281건, 99년 282건, 2000년 178건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철우 기자

포교책자 ‘나눔’ 10만부 제작 500여 사찰·군부대 무료배포

조계종이 포교책자 ‘나눔’ 10만부를 제작, 500여 사찰과 군부대에 무료 배포한다. 이번에 출간된 소책

자 ‘나눔’은 육바라밀중 ‘보시바라밀’의 의미를 다뤘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이며, 동국대경원 차차석 위원인 글을 쓴 ‘나눔’은 보시의 진정한 의미와 현대적 실천가치가 무엇인가를 풀이해 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김원우 기자

불자의 생각

사찰수련

대부분의 불자들은 주말이나 휴가 때 사찰에서 운영하는 수련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0명이 동참한 불자뉴스 설문조사에서 77명(91%)의 불자들은 참가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없

“참가의향 있다” 응답 91%

다는 의견은 8명(9%)에 불과했다. 만약 사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가의향이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해 보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44명(54%)가 참선, 23명(28%)가 예불 등 의식, 6명(7%)이 교리강좌, 5명(6%)가 절하기, 3명(4%)가 체조나 무술, 1명(1%)이 단력·극기훈련이라고 밝혔다. 임태대 기자

경주남산 석조문화재 풍화 심해

구조적 불안정성까지 겹쳐...보존대책 시급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남산의 석조문화재들이 심한 풍화현상과 함께 구조적 불안정성마저 안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대 이상현 교수(지구과학부)가 경주 남산의 불상과 석탑, 마애불 등 석조문화재 10개소를 선정해 풍화와 훼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심한 자연적 풍화에 의해 표면이 떨어져 나가거나(표면 박리) 요철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면 박리는 대체로 2~4mm 두께지만 삼층석탑 마애석가야래좌상처럼 1~2cm 두께로 떨어져 나간 경우도 있다. 특히 마애석가야래좌상은 마애불면과 평행

하게 발달된 절리들이 최대 20cm까지 벌어지기도 해 떨어져 나갈 위험성마저 크다고 이 교수는 밝혔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결과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24일 개최한 ‘경주 남산 문화재의 종합적 검토-보존과 활용’ 학술대회에 발표했다. 조사대상 문화재 가운데 창림사지 삼층석탑, 남산리 삼층석탑, 삼층계곡 석불좌상, 미륵곡 석불좌상 등 7점은 구조적으로도 불안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는 “경주 남산의 경우 알칼리 성분이 많은 화강암이 대부분이라 이에 알맞은 보존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24일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서울 강남 봉은사 명부전 내부. 가운데 지장보살상과 좌우의 19구 목조좌불상이 모두 불에 탔다.

서울 봉은사 명부전 전소

1800년대 현왕탱화 등 불타...방화·누전조사

24일 저녁 10시경 서울 강남 봉은사 명부전에서 불이 나 30여 명의 건물(정조 13년에 중수된 건물이다. 불을 처음 목격한 도건소님은 “잠을 자다가 소나무 타는 냄새가 나와 나와 보니 명부전에서 불길이 일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당시 건물 내에 아무도 없었고 촛불도 꺼져 있었다는 관리인

의 말로 미뤄 명부전 내에 설치돼 있던 벽걸이 선풍기의 전기배선에 의한 누전으로 불이 난 것으로 일단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부전 좌측 아래쪽이 방화지점인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에 따라 방화 여부도 함께 조사 중이다. 한명우 기자

“징계권 남용 정당성 없다”

김종찬씨 불교신문 상대 소송

99년 해직된 불교신문 김종찬 전 상임이사위원의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되어 정당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4일 원고인 불교신문이 ‘김종찬 위원 해임이 부당하며, 복직판결을 하라’고 결정했던 중

양노동위의 판결에 불복 상고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위소’ 소송을 기각, 원안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참가인(김종찬 위원)의 집필실적이 저조한 것은 원고 신문사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참가인에게 집필을 의뢰하지 않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업무태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이로써 김 위원은 복직은 물론 임금 및 상여금 등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침구학 단기 연수안내

국내최초 도입된 중국의 평형침구의학 강의 새로 창안된 남정 사상 침구학 강의 한의사, 전통침구사 침구학에 관심 있으신분 대환영합니다.

질병을 치유코저 하시는 분도 연락 바랍니다. 본원장은 ○대학에 침구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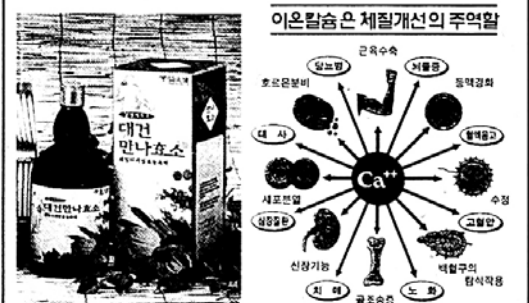
대체의학 연구원장 대체의학박사

연락전화 02)3159-8886 3158-6977 011) 722-6977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지혜”

[Ge] 초에너지 칼슘(Ca++) 효소(酵素) 위력!

- 뼈와 연골(관절)을 재생시키는 능력**
 - 50대이후 뼈와 관절 퇴화를 막는다. (골다공증, 퇴행성 관절)
 - 효소는 이온칼슘과 합성될때 흡수력을 증폭시킨다. (인체내 칼슘이용률 99%)
- 혈액을 맑은 알카리성으로 유지**
 - 뇌신경, 심장기능 및 혈액 흐름속도를 조절한다.
 - 세포 재생능력을 돕고 피부가 청결해진다.
 - 마음이 편안해진다. (심장, 뇌신경 안정)
- 소화기능 및 배설(배변)을 촉진**
 - 위기능 및 영양을 잘 흡수시킨다. (허약체질, 마른체형)
 - 장기능을 증진 활성화시킨다. (변비, 장염)
 - 비만(기초대사를 올려라) : 월 2~3kg 감소
- 면역기능을 증진시킨다**
 - 에너지 합성효소는 간기능 신장기능을 신속히 개선한다.



(주)H.L.D 상담대표전화 02)499-4821~3

“코골이, 당뇨, 암, 특효”

(코골이 연구 10년)

KBS 2002. 3. 13 토요일 아침 방영 MBC 1999. 8. 7 고향은 지금

오랜 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육학+음양오행+신통력+선도특수법+천지 민간 약초로 수년을 연구하신 백연스님

- 오랜 세월 코골이와, 비염, 축농증 고생하신 분
- 간 복수한데, 각종 암 생사에 허덕이시는 분
- 만성변비, 약 드실 때만 괜찮고 재발 하신 분
- 당뇨병으로 수년간 고생하신 분
- 류마티스 관절염, 신경통 산후병 고생하신 분
- 위장병 고민하신 분

이 제품은 깊은 산중에 자생하는 약초로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모든 증상을 효과적으로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달마사 불사에 쓰여집니다.

TEL. 055-385-0065~6 H.P. 011-570-3357

우스이 레이키(Reiki 靈氣)가 왜 화제인가!

- 3일만 배우면 됩니다 - - 탁월한 우주 생명에너지 이용법입니다 - - 건강 전체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생명에너지입니다 -

일본의 정토종종의 구도자 우스이 이카오(1865~1926년)가 교토의 산속에서 21년간의 치열한 단식명상 끝에 받게 된 빛을 지니고 오는 우주생명에너지와 감응하고 그 이용법을 체계화하여 레이키라고 이름지은 이래 이미 레이키는 전세계 50개국 이상에 보급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을 거두다 보니 본래의 내용이 빠지고 에너지의 질에 차이가 생긴 것들도 도처에서 생겨났습니다. 저(박희준)는 많은 길러진 레이키를 고구로 외국에서 배웠지만 특히 일본에서 소수의 인물에게만 전해지는 우스이씨 본래의 어원론(능력진수설) 기법과 에너지를 전수받고 더욱 개량한 끝에 3일이라는 최단기간에 우스이 레이키 제3단계까지 전수하는 일을 1998년 부터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3일 교육제도도 일본, 미국의 어떤 레이키 교육기관에서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우스이 레이키(교육기간 3년제까지 3일, 교육비 70만원)
 - 교육내용 : 우스이 레이키 발명법, 12지묘점 치료법, 금안성질환에 대한 원리치료법, 영성치료법, 악몽을 극복하는 데 대한 에너지주입법, 생활의 여러방면에 걸쳐서 레이키를 활용하는 법, 박의준식 레이키 특급강사(본성 자성 불성) 활용법 등
 - 3일간의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1일간의 무료 추가 교육이 실시됩니다. 원전레이키요법, 지크라탈성 호르몬, 간단한 제령법 등을 배웁니다.
- 카루나 레이키(교육기간 2일, 교육비 50만원)
 - 카루나 레이키는 우스이 레이키를 배운분이나 다음 단계로서 배우는 새로운 레이키입니다. 9종류의 빛을 요법에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교육이 끝난 1개월 후에는 카루나 레이키 제령법 등을 배웁니다.

현대 생활 레이키연구회 대표 박희준 (그랜드 마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